

이른바 검증을 둘러싸고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사이에 갑론을박하던 정운찬씨가 국무총리로 임명됐다.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총리 임명 동의안이 처리됐으니 신임 총리의 앞날이 그리 순탄하지는 않을 것 같다.

정운찬씨는 흔히 'KS'라고 불리는 경기고와 서울대를 나오고 미국 유학까지 다녀와 이 나라 최고라는 서울대 교수와 총장까지 지냈다. 그러나 그는 우리 사회에서 최고의 명예를 누리었고, 버리고 싶지 않은 기득권도 많이 가졌을 것이다. 이번 국회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이런저런 문제들도 그 중 일부가 밖으로 드러난 것이고,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정씨 혼자만 아니라 이 사회의 많은 인사들이 똑 같이 갖고 있는 문제이다. 그래서 정씨는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달리 정운찬씨는 단지 서울대 교수와 총장이라는 명예뿐 아니라 나름대로 '깨끗한 학자'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로 거론된 적도 여러 번 있었고, 여당인 한나라당보다도 오히려 야당 쪽에서 그를 영입하려는 구애노력을 펼쳤던 것으로 비쳐온 했다.

그런 정씨가 이명박 대통령의 제의를 받아 총리로 가기로 한 것은 나름대로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고 지인들과 상의하는 과정을 거친 뒤에



불자 세상보기

이병두 칼럼니스트

한신이 될 것인가 봉맹이 될 것인가

내린 결심일 것이다. 그가 내린 결심이 개인적 명예욕 때문인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내 하나의 명예는 잃을 수도 있다는 대승적 결단인지, 아니면 일부에서 비판하듯이 추한 타락인지는 모른다. 어쨌든 나는 그가 내린 결심에 대해 "올다, 그르다"고 왈가왈부할 생각이 전혀 없다. 다만 이왕 총리를 맡아 국정의 상당부분을 책임져야 하니 앞으로 최소한 몇 가지 원칙만은 분명히 해주었으면 하고 바랄 뿐이다.

정씨는 "국정의 기본 원칙에서 대통령과 다를

때에는 소신을 굽히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안다. 사마천(司馬遷)의 <사기> '사마양저 열전'에 나오는 "장수는 때로 임금의 명을 듣지 않는다(君命不受)"의 고사처럼,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의견이나 정책 방향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의 기본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소신을 분명히 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정 총리가 꼭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놓이지 않는 것은, 이와 비

슷한 포부를 품고 총리의 자리에 나아갔다가 실패한 사례를 너무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전두환 정권 시절 "땀 흘린 곳을 풀고, 막힌 곳을 뚫겠다"며 총리를 맡아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김상협 前 총리의 경우에도 이 포부를 펼쳐 보이기엔커녕 그 동안 쌓아온 '존경받을 자격이 있는 학자'라는 명예를 모두 잃어버리고 쓸쓸히 퇴장했다.

<전국책(戰國策)>에 이런 말이 나온다. "앞에서 있었던 일을 잊지 않으면 뒷일의 스승으로 삼을 수 있다(前事不忘, 後事之師)." 앞서 김상협씨 등 여러 사람이 겪었던 실패의 사례를 부디 귀감으로 삼아, 정 총리는 똑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중국 한(漢)나라 건국의 영웅이면서도 머뭇거리다가 억울하게 죽게 된 마담에 와서야 토사구팽(死狗烹)이라며 한탄하고 말았던 한신(韓信) 장군이 되기보다는,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전한(前漢) 말기의 혼란 속에 "서둘러 떠나지 않으면 목숨을 부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관을 벗어 도성 문에 걸고 떠나(掛冠) 은둔하여 자신과 가족의 몸과 마음을 보전한 봉맹(蓬萌)이라도 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지만 이것은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것이니 제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불만평 박구원. 조계종총무원장 선거. 후보. 청정 공명정대. 합심해서.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 박혜월 인쇄인: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중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대표팩스(02)737-0697. 편집자: 02)2004-8234-55. 인사팀: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톨타뉴스 www.buddhanews.com. 광고팀: 02)2004-8213-7.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FAX: (02)737-0696.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051)632-0064. 대구지사: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055)355-7472. 경남남부지사: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062)384-3009. 충청지사: (043)732-5560. 영주지사: (054)634-3429. 전북지사: (063)910-519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사부대중 테마칼럼. 10월의 테마-결실. 유용한데 쓰여야할 깨달음의 결실. 이 생겨서 기능을 할 수 없거나 기능저하 현상을 가져오는 결실기능 돌연변이(loss-of-function mutation)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높아졌다든 말입니다. 이러한 결실기능 돌연변이뿐만 아니라 바이러스까지 발생하는 현상이 앞으로 자연계와 인간세계에 더욱 더 만연하면 그 종착점은 어디일 것인가? 몇 년 전 미국이 이라크에 엄청난 폭격을 가한 종격의 결실은 지구생명체 어디에 어떻게 나타났는가? 언제부터인가 불가에서도 비공식적으로 허용된 식육소의 트립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지구환경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자기장의 이동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제부터라도 자각해 철저한 대비책을 전 지구적으로 모색하지 않으면 안타깝게도 지구의 변화는 인간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실을 가져올 것이다. 또 다른 걱정은 결실을 방해하는 바이러스가 종교계에도 예외 없이 침투했다는 것이다. 개신교계는 제10차 W.C.C. 한국총회개최에 대한 대립이 심화돼 가고 있으며, 불교계도 최근 최고 어른을 뽑는 선거가 좋은 종자를 완성한 분들이 나오기 보다는 바이러스가 침투해 병들었거나 병들고 있는 종자를 가진 분들이 출마하는가 하면, 고의로 바이러스를 침투시켜 상대를 병들게 하는 등 이미 좋은 결실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어지러운 시대에 거지 중, 바퀴 중, 가사 입은 처사가 나올 것을 경계한 서산 스님의 지혜가 웃음을 다시금 여미게 한다. 이제 우리는 예수가 땅 위에 있는 보물에 마음이 끌리는 자를 경계하면서 인용했다는 <구약성서> 창세기에 나오는 유일한 의인이었던 '롯'을 찾아야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가을 불자 모두가 마음을 새롭게 다잡아 진정한 깨침의 결실을 얻기를 기원 드린다. 그것은 부처의 가르침인 불교신앙의 결실은 당연히 깨달음인데, 우린 이 깨침의 결실을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으며, 영동한 곳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는 계기로 삼아도 좋지 때문이다. 도각스님. 원호유아출생준보존회 회장. 자연치유학박사.

社說. 낙산사 복원불사의 교훈. 2005년 4월 대형 화재로 대부분의 전각이 소실됐던 낙산사가 5년 여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되돌아 왔다. 낙산사는 화마에 굴하지 않고 잿더미 위에 새로운 불국토를 건설하는 원력과 신심의 위대한 결실을 증생계에 선물하고 있다. 불교가 가르치는 중요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무상(無常)이다. 고정된 모습으로 안주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성주괴멸 하는 물상을 가운데에는 사람도 포함된다. 건립되고 흥성하다가 쇠락하여 그 자취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다시 복원 내지 중창되기도 하는 것이다. 옛 사찰들의 역사 대부분이 그러한 과정을 담고 있다. 사찰의 중창에서 중요한 것은 원력과 호응이다. 중창을 발원하는 사람이 없으면 폐사가 되는 것이고 중창불사도 시대의 호응을 얻지 못하면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보면, 낙산사의 복원 불사는 참으로 많은 호응을 안고 있다. 우선 잿더미로 변한 사찰을 온 국민의 연원으로 재건하고자 하는 원력을 세운 스님들의 거룩한 발원이 있었다. 그 발원은 늘 이웃과 함께하는 것이어서 더욱 빛났다. 낙산사는 불사를 진행하면서 지역민들에게 끝없는 보시행을 했으며 관람객들에게도 국수공양을 했다. 또 법고장신의 정신을 잃지 않고 과거의 자료들을 충실하게 고증하여 더욱 뜻 깊은 가람으로 되살려 놓는 지혜를 보여준 점도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낙산사는 제2차 복원불사 회향을 하며 여러 이웃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 한다. 이번 행사가 일체종생이 일체제자이며 일심동체를 일깨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태고종의 화합 무드. 태고종이 안정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고 한다. 제24대 총무원장 인공 스님이 원로회의 인준을 받은 뒤 3명의 부원장을 임명했고 나머지 인사는 추석명절 이후에 단행할 계획이다. 실 부장 등의 인사와 관련된 인공 스님은 전국총무원장 회의에서 추천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방적인 임명이 아니라 공개적인 추천을 통해 임명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태고종의 화합 무드가 성공할 수 있으려면 새 집행부와 종단 구성원의 소통이 원만해야 한다. 산적한 과제들을 하나하나 풀어 가는 과정에서 풀출되는 불만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듣고 지혜롭게 개선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인사가 만사라는 옛말이 있듯이 집행부의 첫 인사는 대단히 중요하다. 선출제도를 통해 당선된 총무원장이 눈에 보이는 논공행실의 인사를 한다면 반드시 소외되는 세력이 생기기 때문에 가장 많은 종도들이 납득할만한 인사를 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임명된 부원장들의 경력과 인품이 신임 총무원장 인공스님을 보좌해 종단의 대소사를 이끌어 가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평가는 태고종의 화합 구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일 다지기와 대외적 이미지 회복의 두 길을 함께 가야 하는 태고종의 제24대 총무원장 체제의 첫 행보가 가벼운 것은 큰 다행이다. 모쪼록 형성된 화합 무드가 종단 쇄신과 발전의 출구가 되길 기원한다.

신화같은 기적을 일으켜 화제가 되고 있는 대체의학의 선구자 三奉(삼봉)스님은 어떤 분인가? 7대 전수 한의이신 조부님 강요에 못이겨 13세부터 6경신 정신수련에 입신해서 79세가 되신 지금까지도 육경신 정신수련을 하시면서 인간은 출생하면서 가는 날은 이미 정해졌다 하지만 사는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잠든 듯이 가는 길은 없을까 하는 일념으로 수련중에 깨우침이 있어 이 세상에 내어 놓은 것이 천의선도입니다. 천이란 불로장생하는 하늘의 의술이며 선도란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면서 신선의 반열에 오르는 길입니다. 천의선도를 전수받고 열심히 수련하다 보면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합장하고 있던 두 손이 밑에서 벌여지고 위에서는 잡아 당기는 느낌이 드는 신비 속에 접어들면 몇 시간을 수련해도 한 순간 같으면서 콧물이 주루루 흘러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나면 삼매경에 들게 되는데 콧물이 아니라 물핀 보다 강한 호르몬이 분비된 것입니다. 옆에서 지켜보면 삼매경에 든지 40분 내지 1시간이 경과하면 목에 침이 가득 차는데 6-7회 삼키고 나면 희열속에 접어들어 1시간 정도 지나면 건뇌에서 다이놀핀이 분비되는데 천상 영계에선 이것이 생명의 감로수라 하는데 현대의학에서는 침은 엔돌핀이라 합니다. 엔돌핀은 물핀의 200배 진통 치유능력이 있고 다이놀핀은 엔돌핀의 700배 진통 치유능력이 있는데 다이놀핀이 분비되면 모든 암세포도 일순간에 소멸되고 망가진 세포가 재생된다는게 영계의 메시지인데 현대의학계에서 포기한 시한부 암환자들에게 천의선도를 전수하고 수련시키다보니 100여명이 넘게 정상으로 회복되어 10년이 지났는데도 건강하게 살고 계시고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평생두통, 위하수, 전립선 이상자, 요실금으로 고통받는 분들께 천의선도를 전수시키고 통증부위에 생명의 에너지를 1주일에 한번 씩 몇 차례 주입시켜 주었더니 정상으로 회복된 분이 2000여명이 넘는데도 재발된 분이 한분도 없는 것이 30년 체험형상입니다. 부산 한의사 협회 회장님으로부터 고발을 당해 가면서도 천의선도를 오늘까지 전수시키고 있는 것은 20대 중반 아가씨가 남편서부터 뇌성마비로 수족이 뒤틀린 장애인이 신체비관을 하고 있기에 위로삼아 천의선도를 전수시켰더니 1년 반이 되면서 오른손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2년이 지나면서 왼손과 오른발이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신화 같은 기적이 (천의) 하늘의 의술입니다. 이러한 신비한 대체의학을 사장 시킬 수가 없어 내 나이가 79세인데, 나의 의식이 생활할 때 이 세상에 남기고 가고 싶어 천의선도는 대체의학 천하제일의 민중의술이란 책자를 발간해서 천하제일의 명의를 양성해서 부처님 뜻으로 큰 봉사하며 살고자 이 글을 광고합니다. 독자여러분 1박2일간에 맥박, 경락도 모르는 분이 천하제일의 명의를 받으면 믿으시겠습니까? 절대로 믿으시고 체험해 보십시오. 이것이 천의선도의 염력전수(도력전수)입니다. 몸이 아파 몸부림치는 분 몸을 편히 해주고, 마음이 아파 몸부림치는 분 마음을 편히 해주며 큰 봉사하며 살자고 스님, 처사님, 보살님, 종교지도자님, 한의사님, 양의학 박사님도 초대합니다. ■전수장소: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489-1 ■전수참가금: 일금 100만원 (특전 - 천하제일의 대체의학 50만, 천문을 열러라 2만원, 매선림 20만원 증정) ■전수과정: 1차: 천문을 열어드림 / 2차: 천의선도 수련법 시행 · 3차: 치료법 실습강의 / 4차: 환신 받고 / 5차: 선단체조법 강의 · 6차: 사면권부여식 (빙의된 신을 천상으로 보낼수 있는 능력 부여식) · 7차: 치료법 2차 실습 마치고 종강 ■전수일시: 2009년 9월 23일 수요일 오후 2시 - 9월 24일 12시 종강 · 2009년 9월 30일 수요일 오후 2시 - 10월 1일 12시 종강 · 2009년 10월 7일 수요일 오후 2시 - 10월 8일 12시 종강 · 2009년 10월 14일 수요일 오후 2시 - 10월 15일 12시 종강 ■저서: 1971년 팔괘비전 열역신서 / 1990년 사상의학 8상체질분류법 · 1994년 천명전수 천의선도 / 2000년 천문을 열러라 · 2006년 천의선도는 대체의학 천하제일의 민중의술 삼봉(김영생) 합장 전화 010-4933-4528 은행계좌번호: 하나은행 382-810082-33207 김영생 (입금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